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정신문화 제목: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정신문화 창조
성경:마태복음 5장 20-26절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회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들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5:20-26)

선린교회의 설립정신을 되새겨 보자.

1. 선한 이웃된 교회 (선린교회)
2.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 (전통 가치 계승)
3.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정신문화 창조 (오늘 다룰 주제)
4. 새 부대가 되는 교회 (율법주의 타파, 새시대 새물결)
5. 은사를 나누면서 성장하는 교회 (은사를 나눔이 유익한 연합)
6. 전인적 회복과 치유로서의 복음 (현실에 나타난 복음)
7.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교회의 사명)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다.

3.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정신문화 창조

- 우리교회는 21세기를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설립되었다.
-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
- ‘선도’라는 표현은 교만한 의미 보다는 적극적이라는 의미와 모범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 예수님도 새 시대를 여시면서 이전 보다는 더 나은 정신문화를 제시하셨다.
- 그러나 그것은 옛시대의 가치를 뒤집는 가치가 아닌, 새롭게하는 것이었으며, 더 세련되고 더 분명하고 더 본래적이고 더 강력한 가치를 위한 것이었다.
- 먼지나 이끼, 불순물이나 녹슬어 버린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케 한다는 의미도 있다.
- 진짜 선생은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을 베푸는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흠모함.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초월하시는 예수님.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거나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율법을 알아야 하고, 그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주의에 빠져야만 하는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다.
-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다.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죽이지는 않았어.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

.죽이고는 싶었지만, 그래서 욕도하고, 비판도 하고, 사람들에게 소문도 내고, 비웃기도 하였지만,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짜 원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기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살인은 아니지만,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해도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즉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원망을 들을만한 일을 하지 말 것이며, 억울한 일을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요즘들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심지어 모독이나 비판을 인격적 살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 살인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비로소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말씀 정신을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적반하장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신이 더욱 복잡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살인하지 말라는, 인격살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욕을 해도 인격적 살인이며 모독이나 비판,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거나 고소당할 일을 하는 것도 살인적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가지 계명으로 표현할 수 있다.(복잡한 것은 판사에게)

우리는 성경말씀과 기독교 정신, 특히 기독교 정신 가운데 개혁교회

정신이 가장 훌륭한 정신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정신이나 문화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특히 구약성경에는 일부다처제도 있고, 계대결혼도 있고, 진멸사상도 있고, 민주주의 보다는 왕족국가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하는 피흘림의 제사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국가라고 해서 모두 정의로운 국가였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교회라도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타락에 빠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들추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모습들도 있다.

.연합하기 보다는 교단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

.대형교회 선호현상(대중은 카리스마와 질서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임. -사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구역교회의 연합체이다. 구역으로 따지면 소형교회보다 적다.)

.소형교회 난립현상(대형교회 선호현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

-중형이나 네트워크 교회가 바람직하다.

.세간에는 교회 세습이 문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권 다툼일 뿐이다.(즉 세습이 아니어도 재산권 다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는 현재 한국사회에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우수하고 적절한 정신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들도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국 기독교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어느때 보다도 바리새인 스럽다. 서기관 스럽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

-100년도 더 된 낡은 옷을 입고 시대를 정죄하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일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구 한말 조선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서생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이려나?

-성경공부를 많이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높는데, 그만 그 지식이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될 뿐 지혜가 되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다.

-또 대충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단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

-성경지식을 많이 알면 설교할 수 있다는 교만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격이나 삶이 모범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쉽게 율법적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바리새인들이 양산되는 현상이 제일 큰 문제.

-율법주의에 젖어드는 사람들의 현상.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정죄감이 있고, 심지어 교회 교인들이나 성직자들에게까지 정죄감이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젖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교회는 이 숙제를 벗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복음 제목:전인적 회복과 치유로서의 복음 말씀:
마태복음 9장 1-17절

-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 8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9:1-17)

- 전인적 회복; 영, 혼(지, 정, 의), 몸의 회복. 창조질서 회복.
- 치유;고침. 생각, 습관, 축귀, 삶과 가정과 일터까지 치유됨.
- 복음;구원의 복음을 필두로 전인격과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핵심으로서의 복음.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적이다. 전인적 회복을 내포하고 있는 복음.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믿음을 보시고. >믿음과 사랑과 희생. 기적 발생의 요소들.
- 작은 자여 안심하라. > 젊음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에 죄책감으로 억눌린 사람일 가능성이 있음.
- 죄사함 선포.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을 감지하심. 실제로 이 청년의 마음 속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을 아심.
- 이 청년의 경우, 몸이 낫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죄사함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함. (작은자여-친근한 표현, 안심하라.-마음이

편해져야 낫기 때문. 영, 혼, 육을 치유하심.)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 서기관들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
- 이들은 치유와 죄사함과 평안함에 몰두해야 한다.
- 그런데 이 강력한 복음의 현장에서 신성모독을 생각하다니 대단함.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율법적 논리에서는 신성모독이 옳은 듯. 그러나 그것은 악하다. 예수님의 의도에는 전혀 그럴 맘이 없었다.
- 만약 이들이 의심이 나고, 궁금했으면 물었어야 옳다.
- 선생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 죄를 사하는 권세 >새로운 패러다임. 천국을 현실화 함. 죄사함의 복음. 이제는 더 이상 양으로 아님. 그것은 예언적이며 교육적인 것이었음.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 세속적인 사람들을 향한 정죄감. 친일파에 대한 정죄감. >실제적으로 이런 정죄감이 세상을 멈추어서게 한다.
- 거래를 동결 시킨다.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 세상은 신뢰 위에 더 크게 발전한다.
- 모든 단체는 신뢰감 위에 세워진다. 믿음 위에 세워진다.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 예수님의 교제는 치유를 위함이었다.

-지역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 먼저 지역으로 가야 한다.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 보다는 긍휼. 제사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긍휼이 우선적이라는 뜻.

-나는 세상에 점수를 매기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

-나는 완벽한 리더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끼리 돕는 법을 체득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을 위한 금식이 율법주의.

-회개를 위한 금식이나, 돌파를 위한 금식이라면 ok.

-그러나 금식을 위한 금식은? no.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슬퍼서 금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심.

-신앙 행위가 나의 유익을 위함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심.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하심.

16 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9:1-17)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생각. 건강한 생각. 우리의 생활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교육적이며, 치유적이어야 할 것이다.

